

- 주요 뉴스: G20 정상회의, 글로벌 최저법인세 추진 기후 대응 합의는 당초 목표보다 미흡
 - 미국과 EU,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
 - 골드만 삭스,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(0.25%p)은 내년 7월에 시행될 가능성
 - 중국 10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, 49.2를 기록하며 2020년 2월 이후 최저 수준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
 주가 상승[+1.3%], 달러화 강세[+0.5%], 금리 하락[-8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견인
 유로 Stoxx600 지수는 금융관련주 강세 등으로 0.8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이 반영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7%, 0.4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영향
 독일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과 성장 둔화 전망 등이 상충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7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0/29일	10/22일	전주말대비			10/29일	10/22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605.4	4,544.9	1.33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5%	1.63%	-8bp
	유럽	475.51	471.88	0.77%		독일	-0.11%	-0.11%	0bp
	중국	3,547.3	3,582.6	-0.98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8,893	28,805	0.30%		중국	46bp	46bp	0bp
	한국	2,970.7	3,006.2	-1.18%	위험 지표	EMBI+	381	374	7bp
환율	달러지수	94.12	93.64	0.51%		VIX	16.26	15.43	5.38%
	유로화	1.1558	1.1643	-0.73%		WTI유	83.57	83.76	-0.23%
	엔화	113.95	113.50	-0.39%	원자재	구리	436.8	449.8	-2.89%
	위안화	6.4056	6.3850	-0.32%		금	1,783.4	1,792.7	-0.52%
	원화	1,168.6	1,177.1	0.7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G20 정상회의, 글로벌 최저법인세 추진. 기후 대응 합의는 당초 목표보다 미흡

-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7.5억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는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던 최소 15%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. 아울러 연결매출액 200억유로, 이익률 10% 이상인 다국적기업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
- 또한 전세계 백신 접종률을 2022년 중반에 70%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, 저소득국가에 대해서는 부채 탕감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
- 다만 기후 대응 관련 합의문은 신규 역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, 다수 국가가 주장한 탄소 중립 달성 시기(2050년)가 명시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은 편. 중국, 러시아, 인도 등의 비협조적 태도가 원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장관,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견해 유지

-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2022년 하반기부터 안정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언급. 또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이 강화되고 있으며,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소득수준도 향상되고 있다고 첨언

■ 미국과 EU,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

- 미국 레이몬드 상무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%, 10%의 관세를 부과하는 기존의 무역확장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. 중국의 저가 철강 공급으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부연

■ 골드만 삭스,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(0.25%p)은 내년 7월에 시행될 가능성

- 해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연준도 보다 증폭된 금리인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. 2번째 금리인상은 2022년 11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- 반면 JP모건의 Marko Kolanovic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. 최근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는 기관의 월말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영향이 크며, 지금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

■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, ECB의 통화정책은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

- 홀츠먼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투명하기에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언급. 또한 선제적 지침은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
- 독일 최대 일간지 Bild는 라가르드 총재가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여 물가상승을 방지하고 있으며, 이에 유럽인들은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을 겪고 있다고 주장

■ 중국 10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, 49.2를 기록하며 2020년 2월 이후 최저 수준

- 이번 결과는 시장 예상치(49.7)을 하회하면서 확장과 수축의 기준인 50을 2개월 연속 하회. Pinpoint 자산운용의 Zhiwei Zhang은 산출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생산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,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신호라고 평가

■ 중국, 2025년부터 대형은행의 총손실흡수능력(TLAC) 강화를 의무화

-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대형은행들이 2025년부터 TLAC 관련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발표. 적용 대상에는 공상은행, 농업은행, 중국은행, 중국건설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이 포함

■ OPEC+, 4/4분기 원유 공급부족 전망을 하향 조정

- OPEC+의 공동기술위원회(JTC)는 4/4분기 공급 부족이 일일 평균 3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. 이는 이전 전망치(110만배럴) 대비 큰 폭으로 감소

■ 세계은행 총재, G20은 저소득국의 부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

- 멜패스 총재는 빈곤국의 부채 동결, 민간부분 참여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. 중국은 저소득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부채 상환 유예에 부정적 입장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28 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 10월 국가통계국 서비스 PMI: 52.4 9월(53.2), 예상치(52.9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ISM 제조업경기지수, 마킷 제조업 PMI
- 미국 9월 건설지출, 독일 9월 소매매출, 중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의 임금 및 물가 상승, 인플레이션의 전방위적 확산 우려는 시기상조 - WSI

(Wages and Prices Are Up, but It Isn't a Spiral—Yet)

- 3/4분기 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여, 인플레이션의 전방위적인 확산 가능성이 제기.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임금상승에 의한 고물가 현상이 저임금 산업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다고 주장. 제조업 부문 임금 상승률은 전년비 3.7%로 통상적인 수준
- Goldman Sachs의 David Mericle도 임금 및 물가지표가 연준의 물가목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. 다만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구인률이 팬데믹 이전 대비 50% 상승하는 등 노동력 부족이 저임금 부문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

■ 주요국의 공급망 차질, 중앙은행의 정책 오류는 경기 회복을 저해 - Financial Times

(Supply chain disruptions are now holding back the recovery)

- 최근 미국과 유로존 제조업 지표는 공급 병목 현상이 생산을 억제하고 경기회복을 둔화시키고 있음을 시사. 이는 각국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총수요 증가와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 부족의 불균형에 기인.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증폭
- 공급부문 문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. 최근 주요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통화긴축을 논의. 만일 중앙은행이 공급에 수요를 맞추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고용회복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

■ G20 정상회담의 기후 대응 합의, COP26 회의에 난항이 예상 - 블룸버그

(UN Climate Summit Starts Under Cloud After G-20 Dodges Hard Questions)

■ 코로나 19에 따른 미국 근로자의 조기 은퇴, 노동공급 부족 해소에 걸림돌 - WSI

(Covid-19 Pushed Many Americans to Retire. The Economy Needs Them Back.)

■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강화, 통화가치 상승을 유도할 전망 - 블룸버그

(Inflation Fighters Lure Emerging-Market Investors as Prices Soar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